

#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최 말 옥

(경성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체험을 통한 본질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면접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8명의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2~3회에 걸쳐 면접한 뒤 Van Manen(벤 매넨)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의 현상은 '못하는 아이에서 느리게 가는 아이로의 이해' 과정이었다. 양육경험의 본질은 '소유가 아닌 바라보기'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의미는 Tennyson(테니슨)이 주장한 소유의 개념이 아닌 松尾芭蕉(바쇼)의 '바라보기'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개념은 Goethe(괴테)의 존재의 개념에서의 '바라보기'이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들은 아동을 키우면서 자신의 틀 안에서 키우고 싶었지만 많은 갈등과 마음 속 전쟁을 치르면서 내 아이가 아닌 아동 그 자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느리게 가는 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마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를 이해하며, 아이와 보폭을 맞추어 가면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함을 경험한 것이다.

주제어: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양육 경험, 현상학적 연구, 소유, 존재

## 1. 서론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Boderilne Intellectual Functioning Children)<sup>1)</sup>은 지능검사 결과 평균을 중심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27-B00433).

1) 학자들 중에는 지적기능이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경우 경계선 지적장애로 칭하기도 하지만 연구자는 장애라는 개념보다는 기능상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으로 명명하

으로 표준편차 -1과 -2사이인 IQ 70과 85사이에 속하는 범주로 분류되는 아동들이다. 이 아동들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사이의 틈 사이에 있으면서(Shaw, 2008: 29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들은 교과에서의 어려움과 행동문제들이 함께 나타나야 비로소 부모가 걱정하기 시작하므로(신중호 외, 2005: 299) 아동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아동이 특별한 문제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동의 태도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이유로 아동 대부분의 부모들도 특수교육을 주저하고 있었으며(Karande, 2008: 795), 장애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신과적 문제를 이중적으로 가지지 않는 한, 말이나 언어로써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Paniagua and De Fagio, 1983: 250)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들은 조기개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좌절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있거나 학습된 무기력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박주연·이희광, 2011; 박호주, 2012; 부경희, 2012; Cantwell et al., 1996).

그런 아동들 중 일부는 자라면서 사회적 약점을 나타내었다. 정신과적 장애가 비장애인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신경증, 물질남용, 성격장애의 비율은 증가하였다(Hassiotis et al., 2008: 95). 또한 전체 지적장애인에 비해 파괴적 행동, 과잉행동, 주의집중 관련 문제, 대인간 인지적 문제해결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이차적인 문제점들을 보이지만(신중호 외, 2005: 303-311; Borthwick and Eyman, 1990; Barlow and Durand, 1995),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공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들이 나타내는 충동적이고 도전적인 행동들은 보다 집중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행동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Handen et al., 1997: 293) 개입의 초점이 잘못된 경우도 많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의 인식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어머니의 인식정도에 따라 자녀의 상태를 현실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 현실보다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McCloughlin et al., 1987). 오히려 부모들은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문제의 원인이 능력이 아닌 태도의 문제로 보기도 하고, 아동을 혼내거나 무리한 학습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이재연·한지숙, 2003). 무리한 학습과 체벌과 같은 방법은 효과적 방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아동들은 일반학급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수학급으로 가거나(박주연·이희광, 2011: 20) 대안학교로의 전학을 고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 교사의 긍정적 행동지원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은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박주연·이희광, 2011:21), 아동의 지능과 행동이 느리더라도 자아존중감이나 정체성의 회복, 사회적응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더 넓은 영역에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가 애정적 양육태도일 때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며(김선영, 2002), 부모가 자율적 태도로 대할 때 일반적인 사회성,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능력이 증가하므로(한옥희, 2006)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아동뿐만 아니라 양육자인 부모의 삶도 윤택해지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육태도의 변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들에게 일방적인 양육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그들의 양육경험을 토대로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변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상의 본질 구조를 탐구하고 밝혀내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특성(Barlow and Durand, 1995; Vuijk et al., 2010)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다. 아동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부모에 대한 연구(Fenning et al., 2007)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들을 보는 관점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아동의 행동에 대한 재해석을 주장(Handen et al., 1997)하거나 공적인 서비스의 필요성(Hall et al., 2005; Emerson et al., 2010)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프로그램의 효과(Nestler and Goldbeck, 2011)를 검증하여 왔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박주연·이희광, 2011; Simmerman et al., 2001; Poston et al., 2003)이 아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에 대한 수용의 과정에서 부모가 아동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를 판단하므로 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개입 필요성을 (Chang and McConkey, 2008) 주장하기도 한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지능의 정상분포를 고려할 때 인구의 1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구 비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을 연구(정희정, 2006; 정희정·이재연, 2008)한 것과 놀이와 치료를 통한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김양오, 2001; 정문순, 2004; 김남희, 2010; 박호주, 2012)한 소수의 연구 외에는 직접적인 연구들이 없는 현실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장애, 학습장애, ADHD의 인구 비율이 각각 2%, 4%, 4-5% 임을 고려할 때 매우 모순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정희정, 2006:2).

그러한 의미에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에서의 본질을 탐구하여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양육 경험의 과정과 의미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 2. 문헌고찰

### 1)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 (1) 특성

미국의 지능장애와 발달장애 협회는 지적장애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 행동과 지적기능에서의 한계로 인해 특징되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challock et al., 2007: 118; Vuijk et al., 2010: 955-956 재인용). 학습활동에 대한 어려움은 대부분 호소하는 문제이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경우도 27.3%에서 작업이 늦어지고, 92.7%에서 쓰기의 어려움을 가진다고 하였다(Vuijk et al., 2010: 956). 이것은 공간·시각에 관한 작업 기억과 수행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 학습 활동을 완수하는 어려움과 지시를 기억하는 것을 실패하기 때문이다(Alloway, 2010: 454).

어떤 사람이 지적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Q점수에 기초하여 분류된다. 하지만 IQ점수에만 의존하는 일차원적 접근은 다른 차원을 배제하여(박승희 외, 2011: 113-115) 정신지체가 아닌 아동을 정신지체로 잘못 분류하는 것을 조장하였다(신중호 외, 2005: 12).

그리하여 지적장애의 진단에서 IQ외의 다차원적 평가기준이 중요시되었다. 즉, 지적능력, 적응행동, 참여, 상호작용과 사회적 역할, 건강과 맥락요소 같은 차원에 근거를 둔 다차원 구조로 재정의되면서(Luckasson et al., 2002; Soenen et al., 2009: 433-434 재인용) 측정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다차원적 분류체계는 인간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식별하고, 개인이나 집단을 묘사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박승희 외, 2011: 115). 경계선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지역사회활동, 자기관리, 가정생활과 업무상황에서 지지를 필요로 한다. 기능적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과이다.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들은 많은 요인들에서 생겨날 수 있다. 아동들은 상대방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갈등을 해결하며, 지시를 따르고, 대화에 참가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ussel and Forness, 1985; Epstein et al., 1986). 몇몇 특정 문제 영역들로는 파괴적 행동, 주의집중 결핍, 낮은 자아존중감(Polloway et al., 1985), 과잉행동(Polloway et al., 1985), 산만함과 기타 주의집중 관련 문제들(Epstein et al., 1986), 대인간 인지적 문제해결에서의 어려움(Healey and Masterpasqua, 1992) 등이 포함된다(신중호 외, 2005: 311-312).

#### (2)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연구 동향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장애범주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 장애군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지능의 특성(Schallock et al., 2007; Vuijk, et al., 2010), 학습의 특성(Vuijk et al., 2010), 적응상의 어려움(Russel and Forness, 1985; Epstein et al.,

1986: Borthwick and Eyman, 1990: Barlow and Durand, 1995), 문제행동(Polloway et al., 1985: Epstein et al., 1986) 등을 연구하였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들의 위험요소를 효과적인 도구 실행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종종 무시되어 오기도 하였다(Shaw, 2008: 291).

기존 연구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지적장애 학생들의 하위범주에 대해 연구한 사람들(Polloway and Smith, 1983)은 10여 년 전에 경도지적장애보다 더 낮은 기능을 보이고 있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경도지적장애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소수자 집단의 아동들이 나타내는 충동적이고 도전적인 행동들은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를 기대하며 관심을 유도하는 행동이며(Handen et al., 1997:293), 어린시기에 자주 나타나고 증가한다는 것이다(Joyce et al., 2001: Soenen et al., 2009: 434 재인용). 행동문제가 나타나는 유형도 내면화하는 유형과 표면화시키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Soenen et al., 2009: 439-440). 그러므로 ADHD아동과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들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Dunn(1968)이 말한 것처럼 경미한 학습문제를 가졌으나 교육가능 지적장애로 분류되어 왔던 아동들을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것보다 문제해결 능력을 개선시키는 집단훈련을 활용하였을 때 문제행동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Nestler and Goldbeck, 2011: 238-239)이 좋은 예일 것이다.

실제 지적장애아동 집단과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집단과의 SDQ(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sup>2)</sup> 조사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점에 의해 노출되는 두 집단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기능의 다양한 영역(행동문제, 정서문제, 또래문제 등과 같은)에서의 집단 차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약점이 정신건강을 야기하는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Emerson et al., 2010: 585). 지적기능의 한계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특히 빈곤한 가운데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들을 위한 효과적인 공중보건과 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함(Emerson et al., 2010: 584) 시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경우 자라면서 정신과적 장애에서 주요한 사회적 약점(약물 남용 등)을 보여주었으므로 이 집단의 상태에 대해 더 인식해야 할 것이다(Hassiotis et al., 2008: 95). 이는 아동기 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줌으로 인해 성인기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 2)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행동에 대한 경향과 반응을 나타내는 문화방식이며(Fishbein and Ajzen, 1975),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계 측면의 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Schaefer, 1961).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간의 인간관계와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주며, 아동은 부모와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와 성공적으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고, 정교화 할 수 있는 기회

2) 부모님을 대상으로 질문한 도구

를 갖는다(Islay et al., 1999; 강현정, 2006 재인용). 실제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들의 동기 지향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요인은 반복된 실패가 가져오는 악영향이다. 부모의 양육과정에서 아동들이 성공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반복된 성공을 통하여 충분한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경험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신중호 외, 2005: 308; 신현기 역, 2008: 292).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감정 또는 요구에 민감하지 못할수록 또래 관계에서 피해 집단이 되기 쉽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다(Smith and Sharp, 1994). 이는 부모의 따듯하며 애정적인 태도, 친구와 가족의 수용적 관계를 지속하는 아동들은 자기신뢰감을 가지고 일정한 사회적 결과를 이루어냄을(Hall et al., 2005:171)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포함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졌거나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70%는 자신의 아이들의 정서적, 행동적 기능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설명하였다. 이들 부모들 중 40.8%는 문제를 감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사람은 70.6%였고, 전문적 도움을 자주 찾는 사람은 55.2%였다(Douma et al., 2006: 1232).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들은 다른 어머니들이 긍정적인 스타일로 보이는 것보다 덜 긍정적이고, 덜 민감한 양육태도를 보였다(Fenning et al., 2007). 아울러 부모들은 과거에 아동들의 소아 정신의학적 문제를 감지하였거나 부정적인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아동들이 불안, 우울의 문제를 가질 때 도움을 더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부모들이 문제해결을 원하거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부모의 평가와 관련되어 도움을 찾는다는 것이다(Douma et al., 2006: 1232). 그러므로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개입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부모에 의한 양육태도가 장애나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론적 관점을 주장하기 보다는 부모가 아동으로 인한 정서적 상실과 결핍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의하여 개인내적, 생태 체계적 관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는 경향이 많다(Turnbull et al., 198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들의 행동은 부모에게 일시적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결혼과 가족관계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Fuller and Olsen, 1998; Gray, 2002). 그렇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으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이 더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돈독해져 가는 가족관계를 보고하기도 한다(Poston et al., 2003). 아동양육에 있어 많은 아버지가 표현하기 보다는 위축된 느낌으로 대처하지만 어떤 아버지들은 양육에 더 많이 개입하고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여하기도 한다(Simmerman et al., 2001).

하지만 부모의 긍정적인 인식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부모들은 아동을 양육하면서 불안, 노여움, 분노, 슬픔 등의 여러 가지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을 토대로 아동을 인정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흐뭇하게 바라보게 될 때 가정에서의 치료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다(최영하, 2002: 107).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경우 긍정적 지각보다는 어머니의 고통과 관련된 부정적인 지각을 발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불안, 우울과 같은 증상은 수용과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즉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판단과 같은 양방향의 수용 과정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것이다. 수용의 과정을 개선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시기에 부모에 대한 지지적 개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Chang and McConkey, 2008: 45-46).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Davis, 1985).

### 3. 연구방법

#### 1) 연구자의 선 이해

연구자는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학교사회복지 현장의 슈퍼비전을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어려움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사회복지사들은 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나 사회복지사 본인들도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어머니들에게 아동의 행동을 설명하고 변화를 도모하게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어머니들이 아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키우려고 하지만 힘들고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어머니들이 다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동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려 하지만 인식의 부족으로 경험을 재구성하기가 힘들 것이라 추측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한다면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새로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 2) 자료수집과 윤리적 엄격성

자료는 참여자의 면접과 관련 문헌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접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면접 시에는 녹취를 하였으며 연구노트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면접의 진행보다도 면접의 대상자를 찾는 것이 힘들었다. 연구 참여자는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소아정신과병의원, 학교, Wee-center 등에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으로 진단받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아동 부모님을 추천받았다. 이는 학습의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아동에 대한 인식을 시작한다는 선행연구에 의한 것이다. 추천 받은 사례 중 연구목적에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한 부모님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도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자의 선 이해를 바탕으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양육경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양육의 경험을 단순히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추천받은 참여자 15명 중에서 전화 접촉 시 거절하신 3명, 아동의 특성이 ADHD

로 한정되거나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2명, 건강상태로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1명을 제외한 9명으로 1회 면접을 진행하였다. 각 면접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상담실, 치료실,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상담실, 복지관 프로그램실, 아동의 가정, 커피숍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되었다. 1회 면담 진행 후 2회 면접이 진행되지 않은 1명은 자료가 불충분하여 제외하여 최종 연구 참여자는 8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과 1회 면접 후 3일이 지나기 전에 녹취자료를 읽고 다음 참여자를 만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앞의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비교를 하면서 면접에 임하였다.

8명의 1차 면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머니들의 대략적인 경험을 토대로 의미주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였다. 이후 2차 면접을 진행하면서 정리한 의미주제를 통해 연구자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어머니의 경험이 충분히 녹아들도록 배려하였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2차 녹취자료를 완성하고 난 뒤 가장 전형적이거나 예외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3차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치료에 참여하는 전문가 6분과 연구 참여자 어머니들에게도 지속적인 자문을 얻으면서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질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명단	아동성별	아동의 학년	아동의 현재 치료 상황
1	a모	남	초6	약물치료/복지관 프로그램
2	b모	남	중2	약물치료/운동
3	c모	여	중1	-
4	d모	남	중1	복지관이용
5	e모	남	초5	약물치료/복지관이용
6	f모	여	중1	심리치료
7	g모	남	초4	인지치료
8	h모	남	초6	사회성훈련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Van Manen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1단계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읽었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거나 경우에 따라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2단계는 기술내용을 의미단위로 구분하는 과정으로 어머니들의 경험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주제적인 것'(신경림·안규남, 1994)을 구분한 다음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미단위를 구분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체험의 본질을 포착해 텍스트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하는 동료들의 의미단위 분석과 비교분석하였다. 3단계는 의미단위들을 주제와 주제적 진술들을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전환



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4단계는 의미단위를 구조로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3단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특히 참여자의 경험에 대하여 시간대별 흐름에 따른 상황적 구조기술로 표현하고 전체 흐름에 따라 주제들을 일관성 있게 재구조화했다. 게다가 분석된 자료에 대하여 끊임없이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작업을 그쳤다. 분석의 과정에서는 사회복지학과 박사 2명,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 질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동료와 함께 의미를 구성하면서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 4. 연구 결과

### 1)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 : 못하는 아이에서 느리게 가는 아이로의 이해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은 ' 못하는 아이에서 느리게 가는 아이로의 이해 '과정이었으며, 현상을 통한 경험의 본질은 '소유가 아닌 바라보기'임을 알 수 있었다. 체험은 직접적인 현상에서는 결코 포착할 수 없고 지나간 현존으로서 반성적으로만 포착할 수 있다(신경림·안규남, 1994: 57). 그러므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들의 양육경험 의미에 대한 파악은 본래의 풍부함과 깊이를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지나간 어떤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에서 의미 있는 것을 포착해 반사적으로 되살리기 위해(re-living) 텍스트로 표현하였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들의 양육경험과 의미를 분석하여 텍스트한 주제는 5개, 구성요소는 19개, 하위구성요소는 73개로 <표 2>와 같다.

<표 2>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 주제와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주제
다른 아이들보다 딱 한 템포씩 늦다.	늦는 아이	못하는 아이에 대한 욕망
병어린 줄 알았다.		
발달이 늦었다.		
공부를 가르치는데 너무 답답했다.	답답한 아이	
수 계산이 안 된다. 거스름돈을 잘 챙겨오지 못하였다		
소풍의 뜻을 몰랐다		
영똥한 것을 한다.	적응이 잘 안 되는 아이	
친구관계가 안됨		
유치원 부적응,		
남들은 착하다고 하는데 어리석어	어리석은 아이	
돈을 아들들 다 나눠줘 버리고		
한번 안 하는 것은 절대 안 한다.	고집이 센 아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말을 조리 있게 못함		
폭력적, 이상한 행동	아이특성에 대한 인지	아이에 대한 수용
어린이집이나 학교선생님의 조언		

조카나 주변 사람			
복지관에서 연락 옴			
복지관에서 연락 옴			
경계선 지적장애	아이특성에 대한 검사	과정	
경계선 지적장애+ ADHD			
경계선 지적장애+우울증			
경계선 지적장애+간질	아이특성에 대한 반응		
잠을 못 잠, 불안, 안절부절, 눈물이 남			
매를 때림			
부부싸움	느린 아이에 대한 이해		
일을 하며 스트레스 품			
그냥 흘러 보냄			
교육을 통한 이해	학습의 수준		보폭 맞추기
학습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음			
죄책감과 후회			
칭찬을 많이 하려 함	관계의 어려움		
점수에 대한 좌절			
책을 아예 안 보려 함, 수업시간의 엉뚱한 행동			
나무 그림이 변화가 없음	학습에 대한 갈등	내려놓 는 고통	
학년이 올라올수록 친구 못 사귀			
친구들이 뿔 사다주면서 친구 사귀			
학교선생님께 친구 사귀기를 부탁	특수학급에 대한 갈등		
또래보다 어린 아이들과 놀			
어른이 억지로 친구관계 맺어줌			
왕따를 당함	장애등급에 대한 갈등		
친구 사귀 필요가 없다고 함			
20-30점 정도의 점수, 초4학년이 되면서 학습이 안 됨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천사와 악마의 소리		
과외, 학원을 보냄, 엄마가 먼저 공부하고 가르침, 스트레스를 받음			
학교선생님으로부터 특수학급에 대한 제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왔다 갔다 함	도움의 손길	소유가 아닌 바라 보기	
보호를 받기도 하나 수준차이가 남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경제적 도움을 위해, 주변에서 권해서			
장애인이라고 놀림 받음, 장애등급이라는 소리 자체가 엄마에게 충격을 줌	내 마음 다스리기		
학교선생님의 아동에 대한 칭찬, 우리 아동만 챙길 때			
복지관 선생님의 도움			
선생님의 무관심, 엄마를 만나주지도 않음			
아이가 떨고 있는데도 다른 선생님과 이야기 함			
영화보거나 등산가는 것			
다른 사람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친구들과의 1박 2일 캠프			
학교 선생님의 칭찬과 관심			
사회성 프로그램, 복지관 프로그램			
약물치료, 인지치료, 심리치료			
학습을 포기			

그래도 큰소리 냄		
회피		
마음 비우는 게 힘들		
부부사이가 안 좋을 때 힘들	엄마의 간절한 희망	
아이들이 만족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당당하게 말했으면		
일반아동들과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왕따를 안 당했으면	여전히 불안한 미래	
중학교를 보내려 하니, 고등학교를 보내려 하니		
군대에 대한 걱정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직업은 가질 수 있을까?		

### (1) 못하는 아이에 대한 욕망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늦는 아이, 답답한 아이, 적응이 잘 안 되는 아이, 어리석은 아이, 고집이 센 아이였다고 진술하였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는 것이 많고, 발달이 늦거나 유달리 고집이 센 아이여서 다른 아이들과 적응하는 게 힘들었다고 하였다. 남들은 우리 아이를 착하다고 하지만 수 계산이 안 되어 거스름 돈을 잘 챙겨오지 못한다든지, 돈을 다른 아이에게 다 나누어 줘 버리기도 하고 소풍의 뜻을 몰라 김밥을 챙겨가지 않아 당황하게 하는 어리석으면서 답답한 아이이기도 하였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못하고 느린 것이 아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출발부터 다른 느린 아이였으며, 발달상 다를 수밖에 없는 아이였던 것이다.

다른 정상 애들보다 딱 한 템포씩 늦다 그 생각 정도 그래서 뭐 많이 걱정도 안하고 그냥 그 정도는 늦을 수 있으니까 애들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주위에 어떤 애가 이제 만약에 뒤집었다 이러면은 어.. 우리 애는 그럼 좀 있으면 뒤집겠구나 ..근데 5살 정도 됐을 때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위에 가서 못 찾는거예요 그 부근까지 갔는데 바로 지 주위에 있어요 근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무슨 색깔이고 뭐고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오지를 못하더라고요 (f모1-6-18)<sup>3)</sup>

소풍의 뜻을 모르니깐 선생님아, “내일 소풍간다!” 이러면 다른 애들은 소풍의 뜻을 아니깐 “와~~!!!” 이러는데 야는 소풍의 뜻을 몰라노니까는 뭐 소풍이 뭔지 모르고 궁께는, ...지금은 또 안 그러거든. 그 소풍의 뜻을 아니깐. 인자 엄마, 와 가꼬 김밥싸줘, 뭐 싸줘, 뭐 하거든. 그 당시 같으면 그 뜻을 모르른 물어 본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기 의욕이 없으니깐 엄마한테 물어보도 안하고 궁께 아~무 말이 없으니까 나는 또 정상적으로 수업을 또 해가고 학교를 보내고, 궁께... (d모 1-16-7)

3) 이 표시는 f어머니의 첫 번째 면담녹취록, 6페이지, 18줄부터 시작되는 내용임을 의미한다.

## (2) 아이에 대한 수용과정

아동을 보살핀다는 것은 아이특성을 인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이에 대한 욕심과 무지 속에서 아이행동을 통해 배워 나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아이를 어떻게 보살피는 것이 좋은지를 배우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내가 소유하려함으로써 아이를 파괴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 ① 아이 특성에 대한 인지

아이는 답답하면 지가 지 머리를 때리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말도 조리 있게 못한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가만히 있다.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늘 답답하고 혹시나 우리아이가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지냈다고 한다. 그러다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선생님이 아이가 발달이 늦다거나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병원을 권하였다. 혹은 동생이 조카가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와 아이의 상태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아동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도 있다.

1학년 때는 그런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으니깐 선생님이나 애들이나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대하는데 따라가지 못할니까 애가 굉장히 그 때 초등학교 입학하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 남들 보기에는 다 뭐 정상적이지요 근데 행동에서 나오는 게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냥 아무래도 뭐 흔히 말하는 2%, 3%가 이렇게 부족하다거나 다르다거나 예.(f모1-8-12)

‘엄마, 나 어디서 내렸는데 잘 못 찾겠고 어떻게 하꼬’ 이라든 전화 몇 번 오더라. ‘니 지금 어딘데’ 그러든 ‘엄마, 여기 어디어디고, 집을 못 찾겠다.’ 그러든 ‘그기서 쪽~ 올라와’ 이라거든예. 그러든 찾아 오더라고예. 찾는 거는 문제없고예. 좀 되게 인자 말이 좀 늦고, 행동이 조금 늦고, 또 저 뭐라노, 애정 표현? 표현이 좀 못 한다 해야겠지요? (c모1-14-11)

### ② 아이특성에 대한 검사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권유를 받거나 부모님 스스로가 판단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지능검사를 받았다. 지능이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진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능이외에도 ADHD, 우울증, 간질 등이 병행된 경우도 많았다.

네 생소했고, 잘 몰랐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제애가 경계선 지적장애 라는 생각보다는 지적으로 늦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확실하게 경계선 지적장애라는 이런 말 하기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쯤 해서 약물치료를 시작했었어요.....(지능검사는) 그때 75 정도 나왔었어요(b모1-3-7).

그러니까 언어하고, 미술 치료 두 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언어는 제가 옮겨가지고 안 하고 미술은 선생님한테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안하거든요. 이제는요....거기서..소개를 해주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경계선 지적장애라고...(지능은?) 지능은..7세?.....(g모1-7-22)

내가 그 치료를 방문했더니.... 아이큐는.....이게 70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근데 이아이가 70은 넘어요.....그래 장애는 안 됩니다.....근데 ....이 행동하는 자체가 장애가 됩니다.(c모 1-9-38)

### ③ 아이특성에 대한 반응

아이가 심부름을 시켜도 거스름돈을 못 챙겨오는 답답한 행동들을 보면서 한숨을 짓는 날이 많았다.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여 혼이 나거나 매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한 와중에 어머니들은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였다.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적도 많았다. 심지어는 옥상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늘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아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게 된다. 스트레스를 풀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다 보니 여전히 그냥 그 상태인 경우도 많다.

우울증이 오드라고예. 막 그래가지고 옥상에 가가 마 여기 말고 판대 옥상에.. 옥상에 가가 마 막~~소리를 질렀으예 마 막!.. 그래도 마음이 벽차가지고, 내가 저런 애들을 어이 키우노 막.. 그래.....그래가...내가야..인자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싫어서 하~...자는 거보면 정~말 눈물 나와예(a모 1-3-12)

그냥 스트레스를 어떻게 못 푸는, 밤에 어떻게 잠이 안 오고 그럴 때가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고등 학교문제가 다가오니깐 이렇게 잠이 잘 안 오고 일어나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풀지를 못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흘러가는것 같아요. 그러다가 걱정이 되니까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또 자고(b모1-18-15)

### ④ 느린 아이에 대한 이해

엄마들은 병원이나 치료실을 다니거나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아이의 행동이 왜 그러한지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는 기회들이 생겼다. 그동안 학습이 왜 그렇게 안 되었는지, 왜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이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처럼 만이라도 자랄 수 있으리라 여기며 공부를 더 시키기도 하였다. 아이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포기하면서 이전보다는 학습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내려놓게 되었다.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느린 아이임을 이해하게 되면서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후회도 들기도 한다.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거나 보행기에만 앉혀놓고 이야기를 안 해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든다. 그래서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설명하고, 칭찬을 하려고 한다.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든 아가 그 더 못 이겨 나가쥬 그!~ 근데 우리 집에 그러면 내가 항상 웃고~ 때리지는 않습니다. 되게 열 받을 때 때린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가슴에 참 많이 남거든요. (c모1-11-5)

지가 칭찬, 칭찬을 많이 해주면 잘해요. 잘한다~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더 잘하는 거예요. 말 잘 듣고...(g모 1-24-3)

### (3) 보폭 맞추기

아동을 키우면서 병원이나 치료실을 찾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학습의 어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친구관계였다. 그 중에서도 친구관계는 어머니가 도와주기가 힘든 사항이라 더 불안하고 두려웠다. 학습은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으면 되지만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혼자 있는 것을 보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아이를 보면 어리석어 보이다가도 안타깝다. 어머니들은 학습보다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찾기를 갈망하였다.

처음보다 지금은 무조건 억박지르기보다, 욕심을 내기보다 아이의 수준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보폭을 맞추어 나가려고 한다. 아이를 끌고 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아이의 보폭에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때로는 성질이 급해 앞서기도 하지만 그 곳에서 아이를 쳐다보며 기다릴 줄 알게 되었다.

#### ① 학습의 수준

10점, 20점, 30점의 시험점수를 받아오는 것은 어머니들을 좌절하게 하고 친구들에게 기죽는 일이다. 수업시간에도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었드려 자는 것이 속상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린 나무와 지금 그린 나무가 똑 같은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다. 지능검사점수가 자꾸 내려가 희망이 없기도 하다. 하지만 구구단도 외우고 받침은 틀리지만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쓰는 것에 만족하며 지내려 한다.

네. 문장을 이해를 못 해요.....책은 아예 안 봐요.(g모1-21-7)

뭔가 만들고는 싶어 하지만 지가 지뜻대로 그게 잘 안되니깐, 쉽게 짜증을 내고, 그다음에 지가 완성한 작품도 지 또래보다 낮은 작품, 칭찬해주지만 일단 그렇게, 지금도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지꿈이 화가라면서, 그러는데, 아주 단순한 그림 캐릭터 계속 그리고, 또 얼마 전 \*\*원장님한테 가서 그림을 그리는 거 보니깐, 나무를 그렸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린나무나 지금 그린 나무나 똑같드라고예, 그렇게 지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면서도, 그렇더라고예(b모1-4-30)

#### ② 관계의 어려움

유치원이나 저학년일 경우에는 친구들이 간간히 있더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 사귀는 게 정말 힘들어졌다. 친구들이 잘 안 어울려주니 친구들에게 뭘 사다주거나 학교선생님께 부탁을 해보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또래보다 어린 아이들과 어울려 논다. 그 속에서도 형 노릇을 못한다. 저만의 세계에선 아동이 최고이지만 공동생활을 잘 못하니 어른이 억지로 친구관계를 맺어주지 않는 이상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아이이다. 그런 와중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거나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도 친구 사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일반아이들과 사귀게 하려는 것은 그런 친구랑 있을 때는 일반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그 저만의 세상에선 지가 최고라, 아가 잘해.....일케 체육대회를 하면은 남들은 체육복 입고 다양하

게 노는데 야는 혼자서 가만~히 있어요. (d모 1-9-13)

친구를 사귄라하니 지가 사다 주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그래가 그 아들이 그 다 얻어먹고 나면은 돌리는 거지. 그런 거를 보면은 내가 마음이 아프고...(c모1-5-12)

1학년 입학해서 부터 친구관계가 지는 좋아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저희반애들도 그렇지만 떨어지고 이라면 답답해하니깐, 안 놀아지는 거예요 어른이 억지로 관계를 맺어주지 않는 이상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정상아와 거의 그게 없는거예요.(b모1-7-20)

#### (4) 내려놓는 고통

엄마들은 아동의 지능이 다른 아이들보다 낮아 모든 면이 느리고 답답하다고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지하는 것과 현실은 달랐다. 내려놓는 고통은 늘 계속되고 있으며 그것은 내려놓는 과정의 고통이었다. 온전히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였다. 엄마들은 학습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특수학급을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장애등급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아이행동과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속에서 천사와 악마의 소리를 듣기도 하며 천사와 악마를 만나기도 한다. 천사와 악마는 다름 아닌 주변의 선생님들이고 이웃들이고 친척들이다. 아니 엄마 그 자신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엄마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되새기며 갈등 속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다.

##### ① 학습에 대한 갈등

아동들이 지능이 낮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알고 있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학습을 시킨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 시험점수를 20-30점 정도로 받아오기도 하고 50점 정도가 되는 아이도 있다.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르치려다 보니 아이와 부딪혀서 점점 학습에 대해 포기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구들로부터 놀림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학습을 완전히 멀리 할 수도 없다. 학습을 시키게 되면 아이와 부딪히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다.

공부시키는 과정에서 어릴 때는 제 의도대로 잘됐지만은 커가지고 애를 앓혀놓고 애를 학습시키니깐 제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떨 때는 ...손이 올라가고 꿀밤도 때려지고(b모 1-6-21)

우리 애가 저렇다해서 아이에 대한 실망이라던지 그런건 전혀 없어요 .....그때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욕심을 지기겠노, 건강한 거 하나로, 건강한 거 하나로, ..... 나름대로 막일을 하고 살수밖에 없는 팔자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살아야 겠지만은 그렇다고해서 내가 저거를 의사를 만들어가 고생을 안 시켜야겠다. 그래가꼬 하기 싫은거 책상에 앉혀가 해해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d모 1-14-32)

##### ② 특수학급에 대한 갈등

일반아동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학습이 떨어지다 보니 학교선생님으로부터 특수학급에 대한 제의를 받기도 한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왔다 갔다 하는 아동들도 있다.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모

어서 학습보다는 다양한 수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괴롭히는 아이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특수학급의 아이들 수준이 워낙 차이가 나 아이가 자신이 왜 그곳에 가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갈 때 특수학급을 보내는 것이 학교를 선택하기가 용이한 경우도 있어 늘 갈등스러운 부분이다.

오는 아이들 중에 특성화보다는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애들이 많이 올라봐 그 시간이 아깝게 보내질까 봐 만약에 요리면 요리 미술이면 미술, 각 과목에 어느 정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애들 교육이 이루어질만한 내가 정보가 없어서 그렇겠죠,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쪽으로 보내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으로 보내고 집 가까이서 왔다갔다하고 ...그냥 졸업장만 받아야 되질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b모1-15-22)

### ③ 장애등급에 대한 갈등

병원과 치료실을 다니면서 차라리 장애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변에서 그러는 게 좋다고 해서 장애등급 3급을 받은 어머니도 있었다. 장애등급을 받고나니 치료실 비용과 병원비가 저렴해졌다. 하지만 아이들이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경우도 생겼다. 어떤 어머니들은 장애등급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도 충격을 받을 정도이다. 미래를 생각하면 장애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주는 도움으로 어떻게 먹고살지 않을까 생각도 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 아이는 그럴 정도가 아니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여전히 혼란스럽다.

거기서는 바로 하시는 말씀이 장애등급을 왜 받지 않았느냐,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또 그때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또 \*\*교수님하고, \*\*원장님은 그렇게 안보고 또 경계선 지적장애로 그냥 보고 약물 치료를 해가면서 바라보시고 보시는 관점마다 다르더라고요. (b모 1-3-32)

인자, 어떤 일이 있냐면 그즈 조카가, 외사촌 조카가 한 살짜리 적은 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가, 학교에 가서 뭐라, 같은 학교 땡깁그든, 궁가 정신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응? 행님이란 소리도 안하고 \*\*이는, 정신병자다. 이래코롬, 막 이래노니깐 ..(d모 1-8-2)

### ④ 천사와 악마의 소리

학교선생님들이 아이에게 잘해주면 천사를 만난 듯이 기쁘다. 특히 칭찬을 해주면 더없이 힘이 난다. 복지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복지관 다니면서 성격도 많이 좋아지고 밝아져 엄마로 하여금 한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한다. 그럴 때 엄마는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게 된다.

반대로 선생님이 아이가 옳드려 자도 관심도 없고 엄마를 만나주지도 않거나 무시하면 속상하고 힘이 빠진다. 그럴 때는 이 상황이 원망스럽다. 엄마인 나도 화가 나고, 우리 아이가 불쌍하고, 내 처지가 불쌍하다. 주변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으려 하지만 주변의 반응으로 아이에게 다정하지 못하게 된다.

..가는 그냥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마, 공부에는. 근데 지금은 쫓~금. 마 니는 못한다 니는 못한다. 이래 노니깐, 나는 원래 못한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래 인자 요번에는 5학년이 가가지고는 가면



은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놀면 논다고 칭찬, 공부하면 하는 데로 칭찬. 이래 해주는 가봐요. “오늘 내 선생님한테 칭찬 받았다?”이라는기라. ”와~~! 진짜 기분 좋다.(a모 1-6-19)

학교 이런데를 잘 안나가거든요. 애들 몇을 서이라 제가 학교 문앞까지 밖에 안가봤어요. 그래노니 지가 인자 \*\*이 선생을 만나가 인자 하는데 그 선생을 만날라 하니깐 그 선생이 안 만나 줄라 하더라네. 그 구청에서 그 \*\*이 담임 선생님을 한번 만날라고 4학년 때 한번 뵈고 싶다하니깐은 시간이 없다 하면서 안 만날라 하더랍니다. .. 누버자면은 선생님 \*\*이 잡니더 이라면 “놔뒀라”이러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a모 1-7-40)

어떤 점이 힘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막 갔는데, 친구가 밀었는데 애가 책상에 부딪쳐가꼬 피가 났는가봐요. 궁까 전화가 왔어. 선생님이. 그래서 쫓아가니까 애가 피가 나고 이라문, 다치고 하든 출고 떨림이, 떨리잖아요. 아가 막, 그 드,등불 이런데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선생님은 옆에서 다른 여자 선생님분하고 이거, 뭐,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 애가 저렇게 떨고 있는데 책, 교실에다가 델다 놓든가, 씩, 그때가 몇월 달이고, 근데 추웠, 암튼 추웠어요. 그케 뭐.. 그런데 막, 궁께 막 저털~정도로,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로 애들인데, 어, 애가 저렇게 떨고 있는걸 무관심 할 거 같은, 애들인데도 얼마나 뭐 이렇게 뭐 자상하겠노, 이런 생각이 참 안 들더라고..솔직히 깨놓고..(d모 1-7-29)

### (5) 소유가 아닌 바라보기

어머니들은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안하지만 마음을 다잡는다. 지내오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도움이 안 되었던 것은 자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를 대하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매를 때리게 됨을 경험하였다. 아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면 될 거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가지지만 당장 중학교를 가야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답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나 스스로를 비워내려고 한다. 내가 비어 있어야 내 아이와 함께 할 힘이, 에너지가 생기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나 스스로를 비워내야 함을 긴 세월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그래야 내 아이도,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이제는 아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만 하려 노력중인 것이다.

#### ① 도움의 손길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요즘 아이는 괜찮나?”라고 물어주는 것보다 아이랑 영화를 한번 보러 가거나 등산을 가주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 아이에게 힘이 되었다. 친구들과의 1박 2일 캠프에 참석한 아이의 표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던 기억이 있다. 그로인해 어머니도 행복했었다. 학교 선생님의 칭찬과 관심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치료제이다. 복지관의 프로그램들도 도움이 되었다. 그곳에서 친구도 사귀고 아이가 이야기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난 것 같다.

일부아동들은 약물치료를 통해 도움도 받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인지치료와 심리치료 등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친구관계를 도와주는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학습은 나아지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도 사귀고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변화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물론 그런 모임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일반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그냥 같이 하는 프로.. 작년에 학교에서 연말에 일반아이랑 같이 그 일박이일로 캠프를 마련 하시더라고요, 애가 너무 좋아하는거예요, (b모 1-17-15)

.. 근데 그 선생님은 인자 자기가 인자 이렇게 전문이다 보니까 애기들 다룰 줄 아니까 \*\*이하고 상담을 하니까, 애가 마,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기라. 거기만 가는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집착성이 굉장히 강할 정도로...그기 막 인자, 쌤이 지말 다들어주고.. 지 애기 다들어주고 지가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 그 선생님을 마, 이렇게 세상에서 지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지 애기를 들어준 사람.. 엄마 외에.....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애를 무시하거든(d모 1-2-3)

### ② 내 마음 다스리기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고 학습도 포기하였지만 다른 자녀들한테 보다는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부모이다 보니까 아동하고의 관계가 더 안 좋아 지는 것 같아서 회피하게도 된다. 마음을 비워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칭찬도 해보고, 마음을 비우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다. 아동 때문에 부부사이가 안 좋아지고 다투는 일이 잦을 때는 더 힘들다. 아이의 변화는 느리고 아이의 행동은 수시로 부모를 화나게 해서 마음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 어머니들을 위한 교육이나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한테 대하는데, \*\*이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이한테는 좋게 뭐라하고, \*\*이한테는 소리를 줌...내쥬,네...안 그럴려고 해도 그렇게 되더라구요...(g모 1-26-18)

이제는 여차피 지가 다니는 학교지만 솔직히 그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애.. 애 위주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가 학교오기 힘들고 학교 와서 생활하는 게 힘들면... 애 입장에서 덜 힘들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그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신경 안 쓴다는 거도 있겠지요 (f모 1-2-17)

### ③ 엄마의 간절한 희망

엄마들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아이가 당당하게 말할 것은 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일반 아동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를 바라며 학교에서 왕따를 안 당했으면 하는 소박한 희망을 갖고 있다. 아동들이 지금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엄마들은 간절히 바랄 뿐이다.

... 다른 애들만큼 흔히 말하는 보통 기준의 그 정도만 가면 그래도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다른 애들만큼 생활을 보통 뭐 어른이 돼서 나가서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사회든 과학이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자석을 어디 붙이면 붙는다 안 붙는다 이 정도는 그래도 솔직히 기본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정도는 가르쳐 주고 싶고 그렇죠...그렇죠 ....점수를 이제 상관 안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구나 100점 되면 좋고 90점 되면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애보고 뒤통을 한다고 개가 100점 맞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f모 1-9-25)

내한테 그게 큰 꿈인데.. 뭐 나는 뭐 잘 되라 하는건 아니라 그냥 남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바보처럼 말고 그냥 지가 당당하게 말할 께 말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하니깐. 내가 봤을 때는 그래(a모 2-21-18)

#### ④ 여전히 불안한 미래

어머니들은 학습이 어려워지는 중학교를 보내려고 하니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갈 시점에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보내 그냥 졸업장만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무엇보다 남자 아이들은 군대에 대한 걱정도 된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면 낮은 대학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희망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겪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교우관계 등으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받게 되는 맥락으로 보여진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지만 그냥 막연히 걱정이 그 뒤에 오는 아이들 중에 특성화보다는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애들이 많이 올라봐 그 시간이 아깝게 보내질까 봐.(b모 1-15-22)

키우면서 인제, 키우면서 힘든게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급이 되어가지고 장애등급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이 상태로는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 .....장애등급을 받아야 되나, 미래 직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등학교 진학이 당장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지금 현재.....네, 그때도(중학교를 보낼 때), 쫓고 민을 했는데, 대안학교 이런데도 보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대안학교 자체가 또 나름대로 입학기준이 일반학교보다 더 엄격한 것 같더라고요.....(B모 1-8-20)

## 2)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글쓰기

갈라진 벽 틈새에 핀 꽃이여,

나는 너를 그 틈새에서 뽑아내어,

지금 뿌리째로 손 안에 들고 있다.

작은 꽃이여\_\_그러나 만약 내가

뿌리째 너를, 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으련만. (차경아 역, 2005:33)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의 현상은 '못하는 아이에서 느리게 가는 아이로의 이해' 과정이었으며, 현상을 통한 경험의 본질은 '소유가 아닌 바라보기'임을 알 수 있었다. Tennyson의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내 아이니까 누구보다 잘 난 아이로 키우고 싶었고,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누구보다 뛰어난 아이로 키우고 싶은 욕망이 컸었다.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될 줄 알았다. 욕망이 컸기 때문에 내 아이를 이해하는 데 엄마도 느렸나보다는 후회가 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내 아이가 아닌 아이 그 자체로서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눈여겨 살펴보니  
올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이누나!  
(차경아역, 2005: 33)

松尾芭蕉의 글처럼 내가 바라는 내 아이가 아닌 올타리 곁의 냉이꽃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  
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사랑한 모든 것은, 내가 그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다.  
(류시화역, 2003: 9)

그러면서 Buscaglia(버스커글리아)의 말처럼 느리다는 것도 이해하고,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닌 아이 그 자체를 사랑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엄마의 욕망을 내려놓는 고통의 과정이기  
도 하였다.

나 홀로  
숲속을 거닐었지.  
아무 것도  
찾을 뜻은 없었네.

그런데 그늘 속에 피어 있는  
작은 꽃 한송이 보았지.  
별처럼 반짝이고  
눈망울처럼 예쁜 꽃을.

그 꽃을 꺾고 싶었는데,  
꽃이 애처롭게 말했네.  
내가 꺾어서  
시들어버려야 되겠어요?

하어, 꽃을 고스란히  
뿌리째로 캐어,  
예쁜 집 뜨락으로 옮겨왔지.  
조용한 자리에  
다시 심어놓으니,  
이제 늘상 가지 치고  
꽃 피어 시들 줄 모르네. (차경아역, 2005:34-35)

어머니들의 그러한 과정은 Goethe의 '발견'의 시와 같다. 어머니들은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안하지만 마음을 다잡는다. 지내오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도움이 안 되었던 것은 자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를 대하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매를 때리게 됨을 경험하였다. Goethe의 시처럼 꽃을 꺾어 시들어 버리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소유하려고 한 욕망이 아이를 망치게 됨을 알게 된 것이다. 아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미련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가지지만 당장 중학교를 가야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답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나 스스로를 비워내려고 한다. Goethe의 시에서 나타나듯이 내가 비어 있어야 그들 속에 피어있는 꽃을 찾을 수 있으며, 내 아이와 함께 할 힘이, 에너지가 생기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나 스스로를 비워내야 함을 긴 세월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그래야 내 아이도,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이제는 아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만 하려 노력중인 것이다. 하지만 내 옆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욕망에 숲에서 트랙으로 옮겨와 생산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마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와 보폭을 맞추어 가면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함을 경험하였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체험을 통한 본질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면접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8명의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2, 3회에 걸쳐 면접을 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는 Van Manen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의 현상은 '못하는 아이에서 느리게 가는 아이로의 이해'과정이었다. 못하고 느린 것이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이 노력해도 다른 아이들처럼 빠르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느리게 가는 아이에게 보폭을 맞추어 가는 것임을 경험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험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발달이 늦거나 어리석거나 엄마를 답답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아이이다. 즉 처음부터 다른 아이였다는 것이다. 특히 지능이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하는 시기는 학교에 들어가서 인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검증된(신중호 외, 2005; Schalock et al., 2007; Vuijk et al., 2010) 결과와 같다.

둘째,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주된 어려움은 학습과 친구관계에서 나타났다. 아동의 적응상의 어려움(Russel and Forness, 1985; Epstein, et al., 1986; Borthwick and Eyman, 1990; Barlow and Durand, 1995)과 문제행동(Polloway et al, 1985; Epstein et al., 1986)들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어머니들은 늘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 한계를 절감하기도 한다.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Hall et al., 2005; Emerson et al., 2010)할 것

으로 여겨진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의 현상은 '못하는 아이에서 느리게 가는 아이로의 이해'과정이었으며, 현상을 통한 경험의 본질은 '소유가 아닌 바라보기'임을 알 수 있었다.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어머니들은 '나도 아이가 있음을, 엄마라는 존재임을' 즐거워하며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뜻하는 목표대로 잘 키우려고 하였다. 테니슨의 시에서 "지금 뿌리째로 손 안에 들고 있다"는 그 꽃과 같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소유하려 하였다. 그래서 아이가 평소예 달리기를 못하지만 엄마가 도와주니까, 적어도 등위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기대는 무너지고 다음 경기를 하는 아이들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낼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과 시합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달리기를 못한다는 것을, 달리는 것이 다른 아이들이 걸어서 가는 것보다 늦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프지도 않고, 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다. 내가 아이를 업고 달릴 수도 없고, 아이가 못해내는 것도 아니다. 아이는 느리게 갈 뿐이고 늦게 도착할 뿐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엄마는 내 꽃이, 내 아이가 시들어 있는 것에 불만이다. 아이가 못한 것보다 결국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은 것이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도 엄마는 소유하려고만 한 것이다. 우리 아이가 달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걷는 것임을 안후에는 아이와 보폭을 맞추며 스스로의 욕심을 비워내기 시작하였다. Tennyson의 비유처럼 꽃을 가지는 게 아니라, 松尾芭蕉의 비유처럼 꽃을 알아보기 위해서 Goethe의 비유처럼 단지 눈여겨 살펴볼 뿐이다(차경아 역, 2005 참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마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와 보폭을 맞추어 가면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함을 경험하였다. 경험 본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의 경험이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후 아이가 남들보다 더 잘되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아동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아동의 어려움을 외부로 드러내거나 (Fenning et al., 2007), 도움을 찾아 다녔다. 아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장애물은 부모의 평가와 연관이 있다는(Dourna et al., 2006: 1232) 결과를 지지하는 부분이다.

둘째, 아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과정이다. 아이가 학습뿐만 아니라 문제행동과 대인관계 등 이차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기 시작하자 '내 아이가 왜 이럴까?' 고민하며 주변의 자문과 의사의 진단,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유하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때로는 엄마의 태도로 인해 아이가 또래집단에서 힘들어하고(Smith and Sharp, 1994), 사회적으로 잘 지낸다는 것도 경험하였다(Hall et al., 2005: 171). 아이 때문에 가족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였다(Poston et al., 2003). 아동의 존재에 대한 수용과정에서 엄마의 인식은 중요한(Turnbull et al., 1988; Scorgie and Sobsey, 2000) 요소임을 알 수 있는 맥락이다.

셋째, 바라보기 경험이다. 아이를 소유하려하면 아이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경험 하면서 아동을 소유하기보다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각하였다. 하지만 이 경험들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그렇다. 그래도 엄마가 존재하고, 아이가 살아있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존재 그 자

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려 한다. 그래서 내 아이를 보다 많이 알려고 하는(소유)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이 알려고 노력하며 바라보려 한다. 그래서 아이를 멀리 보내지 못하고 아이 옆에서 바라보려는 또 하나의 욕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들이 성숙되게 하는 과정이며, 아동의 안녕에 기여하는 과정으로(Simmerman et al., 2001) 보인다.

이러한 경험적 본질 탐색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보이는 답답하고 어리석고, 늦은 행동이 아이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이재연·한재숙, 2003). 이러한 인식은 아이를 혼내게 되고, 부부싸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아동들은 문제행동과 같은 이차적인 문제점(Barlow and Durand, 1995)을 나타내게 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과 부모들이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 학습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아동의 경우 조기검사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어머니들이 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지를 하더라도 아동의 학습과 친구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개입은 여전히 힘든 부분이다. 사회복지기관과 학교영역에서 아동과 어머니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방과 후 교육기관, 가정이 연계한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박주연·이희광, 2011)을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실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엄마를 비워내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엄마'는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체계는 중요하다. 지지체계에 대한 강화는 엄마를 변화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Chang and McConkey, 2008:45-46) 때문이다. 병원이나 복지관에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발견, 개입의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지집단이나 자조집단의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선생님들이 아동들을 지지적 환경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머니들을 늘 갈등하게 한다. 엄마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므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양육에 관한 정확한 지침서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대안학교 프로그램의 개발, 방과 후 학교나 주말학교 프로그램의 도입 등도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 주 대상자는 어머니이다.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긍정적 태도가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도 밝혀졌지만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부담감도 실천적 개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에 대한 공적인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초,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생애 주기적 변화에 의한 경험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또한 모의 양육경험에 의존하여 부의 의견을 본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아동의 지적기능과 사회성의 정도와 같은 세분화된 양육 경험의 근거로는 부족한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이러한 연구가 진

행될 수 있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강현정, 2006, “한국아동인성검사(KPI-C)에 나타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비교”,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남희, 2010, “구조화된 집단 놀이 활동이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신지체아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오, 2001, “게임놀이 치료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주의집중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희 · 김수연 · 장혜성 · 이수현, 2011, 『지적장애: 정의, 분류 및 지원체계』, 서울: 교육과학사.
- 박주연 · 이희광, 2011, 학교, 방과 후 교육기관, 가정 간 연계를 통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경도정신지체 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3(1) : 1-27.
- 박호주, 2012, “동화를 활용한 집단놀이 프로그램이 경도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부경희, 2012, “경도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기개념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시화 역, 2001,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Dalai Lama, H. H. and Culter, H. C, 1998, The Art of Happiness, 서울: 김영사.
- 신경림 · 안규남 역,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 방법론』, Van Manen, Max.,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서울: 동녘.
-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 2004, 『질적 연구방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신종호 · 김동일 · 신현기 · 이대식 역, 2005, 『정신지체』, Smith, Mary Beirne., Ittenbach, Richard F., and Patton James R., 2002, Mental Retardation, Prentice Hall, 서울: 시그마프레스
- 신현기 역, 2008, 『생의 주기별로 본 지적장애인』, Drew, Clifford, J, Hardman, Michael, Hardman, 2007, Intellectual Disabilities Across the Lifespan, Prentice Hall,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재연 · 한지숙, 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연구”, 『아동학회지』, 24(2) : 63-78.
- 정문순, 2004, “미술치료를 통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부적응 행동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희정, 2006,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정희정 · 이재연, 200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2(4) : 43-66.
- 차경아 역, 2005, 『소유냐 존재냐』, Erich Fromm, 1976, To HAVE or TO BE, 서울: 까치글방.
- 최영하, 2002, 『정신지체아의 심리 및 지도』,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 한옥희, 2006, “정신지체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oway, T. P., 2010, “Working memory and executive function profiles of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5) : 448-456.
- Barlow, D. H., and Durand, V. M., 1995, *Abnormal Psychology: An Intergrated Approach*,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Biegel, D. E., Milligan, S. E., Putnam P., L., and Song, L., 1994, "Predictors of burden among lower socioeconomic status caregivers of person with chronic mental ill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0(5): 473-492.
- Borthwick-Duffy, S. A., and Eyman, R. K., 1990, "Who are the dually diagnosed?", *American Journal on Mental on Retardation*, 94:586-595.
- Cantwell, D. P., 1996,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 review of past child with birth defec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 255-265.
- Chang, Mei-Ying., and McConkey, Roy., 2008,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taiwanese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55(1): 27-41.
- Davis, Hilton., 1985, "Counseling parents of children who have intellectual disabilitie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2(1):19-35.
- Douma, Jolanda C. H., Dekker, Marielle, C., De Ruiter, Karen P., Verhulst Frank C., and Koot, Hans M., 2006, "Help-seeking process of parents for psychopathology in youth with moderate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5(10): 1232-1242.
- Dunn, L. M., 1968, "Special education for the mildly retarded-Is much of justifiable?", *Exceptional Children*, 35:5-22.
- Emerson Eric, Einfeld. Stewart., and Stanciffe, Roger. J., 2010, "The mental health of young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or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5: 579-587.
- Epstein, M. H., Cullinan, D., and Polloway, E. A., 1986, "Patterns of maladjustment among mentally retarded children and youth",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91: 127-134.
- Fenning, Rachel M., Baker, Jason K., Baker, Bruce I., and Crnic, Keith, A., 2007, "Parenting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 unique risk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12(2):107-121.
- Fishbein, M., 1975, *I Belief,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 Wesley.
- Fuller, M. I., and Olsen, G., 1998, *Home-School Relations: Working Successfully with Parents and Families*, Boston: Allyn & Bacon.
- Gray, D. E., 2002, "Ten years on: A longitudinal study of families of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27: 215-222.
- Hall, Strydom, A., Richards, M., Hardy, R., Bernal J., and Wadsworth, M., 2005, "Social outcomes in adulthood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impairment: Evidence from a birth cohort",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9(3):171-182.
- Handen, B. L., Janosky, Janine, and Mcauliffe, Sarah, 1997, "Long-term follow-up of with mental retardation/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ADH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4): 287-295.
- Hassiotis, A., Strydom, A., Hall I., Ali A., Lawrence-Smith, G., Meltzer, H., Head, J., and Bebbington, P., 2008, "Psychiatric morbidity and social functioning among adults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 living in private household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2(2): 95-106.
- Healey, K. N., and Masterpasqua, F., 1992,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mong children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96:367-372.
- Islay, S. L. R., Clafelter, D., and Parke, P. D., 1999, “Parent and child expressed affect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odeling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Development Psychology*, 35(2): 547-560.
- Joyce, T., Ditchfield, H., and Harris, P., 2001, “Challenging behavior in community servic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5: 130-138.
- Karande, Unil, Kanchan, Sandeep, and Kulkarni, Madhuri, 2008., “Clinical and psychoeducational profile of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ndian Journal of Pediatrics*, 75: 795-800.
- Luckasson, R., Duffy, Borthwick. S., Buntinx, W., Coulter, D., Craig, E., and Reeve, A., 2002, *Mental Retardation: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Systems of Supports(10th ed)*,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McCloughlin, J. A., Clark, F. L., Mauch, H. R., and Petrosko, J., 1987, “A comparison of parent-child perceptions of students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ies*, 2: 357-360.
- Nestler, J., and Goldbeck, L., 2011, “A pilot study of social competence group training for adolesc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s(SCT\_\_ABI)”,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5(2): 231-241.
- Paniagua, Cecilio, and De Fagio, Antoinette., 1983, “Psychodynamics of the mildly retarded and borderline intelligence adult”, *Psychiatric Quarterly*, 55(4): 242-252.
- Polloway, E. A., and Smith, J. D., 1985, “Change in mild mental retardation: Population, programs, and perspectives”, *Exceptional Children*, 50: 149-159.
- Poston, D., Turnbull, A., Park, J., Mannon, H., Marquis, J., and Wang, M., 2003, “Family quality of life: A qualitative inquiry”, *Mental Retardation*, 41(5): 313-328.
- Russel, A. T., and Forness, S. R., 1985, “Behavioral disturbance in mentally retarded children in TMR and EMR classrooms”,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89: 338-344.
- Schaefer, E., 1961, *Converging Conceptual Models for Maternal Behavior and for Child Behavior, Parental Attitudes And Child Behavior*, Glidewell, Thamas Publisher Inc.
- Schalock, R. L., luckasson, R. A., Duffy, Borthwick. S., Bradley, V., and Buntinx, W. H., 2007, “The renaming of mental retardation: Understanding the change to the term intellectual disability”,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5: 116-124.
- Scorgie, K., and Sobsey, D., 2000, “Transformational outcoms associated with parenting children who have disabilities”, *Mental Retardation*, 38: 195-206.
- Shaw, Steven, R., 2008, “An educational programing framework for a subset of students with diverse learning needs: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43(5): 291-199.
- Simmerman, S., Blacher, J., and Baker, B. L., 2001, “Father’s and mother’s perceptions of father involvement in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26: 325-338.
- Smith, P. K., and Sharp, K., 1994, *School Bullying: Insights and Perspectives(Eds.)*, London:

Routledge.

- Soenen, Sarah, Berckelaer-Onnes, I. V., and Scholte, Evert, 2009, "Patterns of intellectual, adaptive and behavioral functioning in individual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9: 433-444.
- Turnbull, H., Guess, D., and Turnbull, A. P., 1988, "Vox populi and baby doe", *Mental Retardation*, 26: 127-132.
- Vuijk, P. J., Hartman, E., Scherder., and Visscher, C., 2010, "Motor performance of children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and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11): 955-965.

## Analysis of Nurturing Experiences Mothers whose Children have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Disorder

Choi, Malok  
(Kyungshung University)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are giving experiences of mothers, who have their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disorder. The core analytical strategy was to find out the essential meaning of caring their children. For this purpose, eight mothers were participated in depth interview, which conducted during October, 2011 through July 2012. The face-to-face interview repeated two or three times based on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he interview suggested two major findings: changing mother's view from raising retarded children to caregiving a child with growing-up substantially slow speed; the essence of nurturing experiences for mothers, whose children have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was to watching with attention rather than advocating ownership. This result can be also found in Barshov's concept of 'watching' rather than 'possession', which is suggested by Tennyson. However, the essential meaning of this concept was associated with 'watching with care', which was originated from Goethe's notion of 'existence'.

Mother's of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have reached a point of view: when creating a parent-child relationship, it was essential that the child was not 'my child', but was 'a child' per se. This typ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was a result of giving up a desire that the child raised within mother's boundary. It was also a result of psychological warfare and conflict in mother's mind. To internalized this view, it is recommended that the mothers implement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first, the mothers put down overly-pushed motive toward their children; second, they enhance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toward their child;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mothers build a new sense of existence through matching their level of concern with their children.

Key words: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nurturing experiences mothers,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possession, existence.

[논문 접수일 : 13. 11. 10, 심사일 : 13. 11. 19, 게재 확정일 : 13. 12. 23]